

2016년 16번째 졸업전시회

가든 하다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본 전시 및 책자는 학사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며, 졸업논문을 대신합니다.



가.든.하.다

: 다루기에 가볍고 간편하거나 손쉽다.

: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

2016년 4월 10일 발행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Environment Greendesign, Art end Culture, Samh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02-3399-1724 (학과사무실)

차례

학과소개

006

인사말

007

졸업작품

013

게릴라 가드닝 / 015	디스플레이	제품디자인	책상위의 정원 / 021
어린이 정원 / 029	조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바람 한 점 / 041
			어울림 / 045
			분(憤)을 참지 하는 화분 / 049
			GREEN WAVE / 053
무채화 / 059	캠페인디자인	화훼디자인	위, 키드 / 069
데미:[THE ME] / 063			'나'라는 정원을 가꾸시는 분 / 073
			숨은 소중함 / 077
			정글리닉스 [Junglinice] / 081
해어화 / 101	조명디자인		FLORALIA / 085
별 술 / 107			사색.. 생각의 꽃이 피다 / 091
봄날, 벚꽃 그리고 ... / 111			Meet me the garden 정원에서 만나자 / 095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환경그린디자인이란?

‘환경’ 과 그린디자인의 뜻인 ‘친환경적인 디자인’ 이 결합된 의미로 인간과 자연(식물)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학과 소개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관상식물을 현대 생활 환경에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co-Design 학문을 실천하는 학과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 공간을 기능성과 미적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련 분야의 많은 디자이너가 요구되는 21세기를 위해 인간에게 식물이 미치는 심리적, 적서적 건광과 물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힘으로써 독창성 있는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교육목표 및 목적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좋은 환경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목표로 생활 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이론과 실기를 집중 훈련하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의 어느 곳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교육시키며, 오염된 환경과 도시를 관상식물로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그린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과 진로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 후 실내조경업을 자영할 수 있으며, 건축회사 및 관련 업체의 조경디자이너, 조경회사, 기업체의 실내조경관리사, 방송무대장식, 공항실내조경사, 호텔식을 디자인 및 관리자, 플로리스트, 플라워 샵 경영, 컬러리스트 등 많은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공분야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환경그린디자인 전공사가 필요로 하여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영사



류병열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학과장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관상식물을 현대 생활환경에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co-Design 학문을 실천하는 학과로,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고자 학과 교수들과 학생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정원과 식물의 내용이 아름다운 정원, 도시에 사는 도시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정원을 “가든하다”라는 제목으로 제16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학생들이 4년동안 배우고 느끼고 즐겼던,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작품이라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앞으로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보다 큰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김성익

삼육대학교
총장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과 소비가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될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화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온 유무형의 자원들을 이용해낸 결과이며 거기서 기인한 여러 문제들은 자연을 남용하며 일방적으로 소비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만들어 낸 문제들은 또 다시 자연에서 그 모범답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이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찾는 것 입니다.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자연과 공존하여 소통함으로 생기 없는 공간들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분야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학과입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환경그린디자인 학과에서는 지난 16년여 동안 다양한 주제와 컨셉을 가지고 졸업 작품 전시회를 열어 오고 있습니다. 'Garden'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며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가든하다'는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입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잠깐이나마 마음이 '가든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 전시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주신 우리은행장님과 기획하신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사



이광구
우리은행 은행장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입니다.

먼저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16회 졸업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의 ‘행복하고 선량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훌륭한 가치를 전해주는 물건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처럼, 매년 열리고 있는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작품들은 디자인을 통해 우리 주변 일상의 사물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메마르고 거친 현대인의 삶에 한줄기 여유와 행복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garden’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공간이자,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garden’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가로수보다 마천루가 더 많아진 도심 속에서 만나는 ‘garden’은 우리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졸업생들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탄생한 ‘예술의 정원’입니다. 디자인이 빚어낸 자연 속을 거닐며,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받고 치유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예술계를 이끌어갈 졸업생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garden’을 가꿔가기길 응원합니다.

축사



윤평섭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명예교수

2016년 제16회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총장님 이하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지도교수들과 졸업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15회에 걸쳐 성공적인 전시를 진행한 환경그린디자인학과만의 전통을 이어 환경의 그린디자인을 위해
시대적 부응에 발맞추어 아름다운 도시 정원에 관한 아이디어와 메시지 전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로 기대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시회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온 힘을 다하여 발휘한 졸업반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획의도의 글



김유선

환경그린디자인학과
교수 / 졸업전시회 총괄

환디인이 의미하는

가. 든. 하. 다.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환경을 계획하고 표현하는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016년 졸업전시회 주제는 garden입니다. 수세기 전부터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환경 속에는
garden이 존재하여왔으며 그 의미와 기능도 다양하였습니다. 현대의 garden의 의미 또한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일 겁니다.

제16회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에서 표현한 garden은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휴식을 가.든.하.다.라는 제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가든하다'는 garden을 '꾸민다.'표현한다. 등의 garden에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우리말로
'(물건이나 차림 따위가) 알맞게 가볍고 단출하다.' 또는 '마음이 가분하고 상쾌하다.'
라는 뜻으로 졸업전시회 작가들은 가장 알맞고 적합한 디자인을 하여
그 디자인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garden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한 환디인들의 작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라며,
각자의 garden에서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2016년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작가들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학생대표의 글



이은호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졸업작품위원장

제16회 환경그린 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위원장 이은호입니다.
이번 주제 가든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다소 멀어져버린, 흐릿하게 생각나는 것이었기에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주제였고
그 안에서 작가들 모두가 각자의 정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정원을 엿보는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곧 사회로 나가는 4학년들에게 학교와 사회의 마지막 경계인 졸업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 하셔서
모자란다면 날카로운 비판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는 작품에게는 아낌없는 찬사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더 치밀한 디자이너가 되는 환대인들이 될 수 있는 전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모든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곱씹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움을 끌어내주신 교수님들, 함께한 작가들, 모두 감사합니다.

Display

디스플레이



게릴라 가드닝

백 설 조상원



디스플레이

게릴라 가드닝

충족된 공간이란

공간, 사람, 사물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은 Sensitive 하기에, 충족된 공간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도 Ironic 한 말이다.

다양한 분야, 많은 작가들의 전시는 더욱더

그러기에 우리는 공간을 맡긴다.

작가와 작품, 그리고 존재하는 공간에게



백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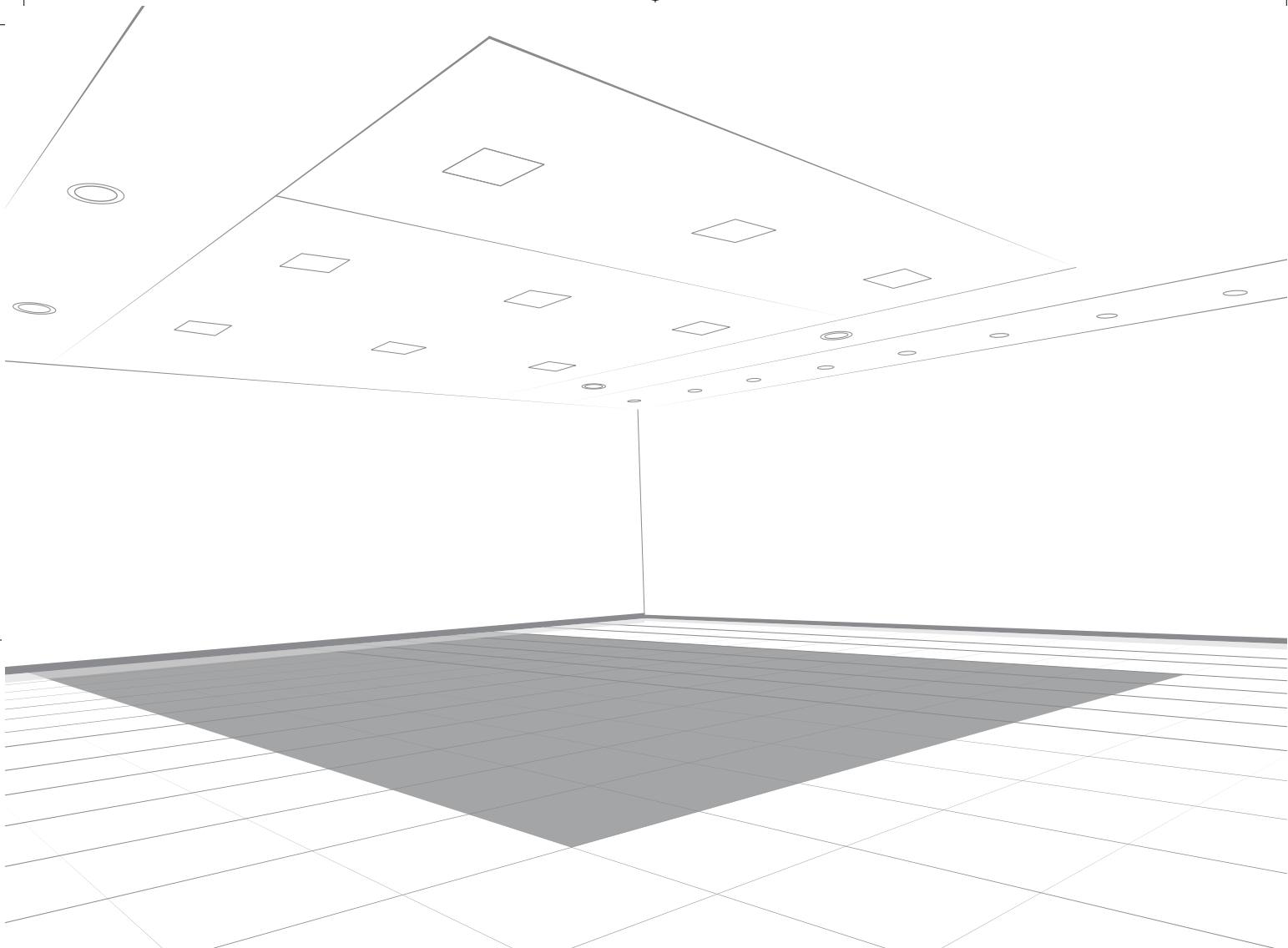
조상원

SPACE



Line,

Open Space,
공간에 선이 떠오르다.
공간과 공간이 흘러가서 만나는 작품들의 경계 지점
Space Open,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경험한다.



Guerrilla Gardening,

작은 정원들이 가진 고유한 표현에는 제한됨이 없다.
억지스러움으로 한 공간에 이 많은 표현들을 담기에는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억지스러움 대신 자연스러움을 담고자, 이 공간을 순수하게 맡긴다.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작은 정원의 조성,
게릴라 가드닝 같은 공간으로

Product

제품디자인



책상위의 정원

박진주 이유진





패키지 디자인 책상위의 정원

현대인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책상앞에서 보낸다. 바쁘고 지친 이들을 위해 일상속에서 소소한 기분전환을 할수 있도록, 책상위의 소지품들에 정원의 감각을 입혀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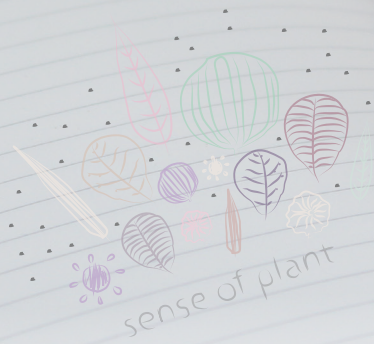


박진주



이유진





‘피어나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씨앗들이 자라 싹을 텄다.
그 싹이 자라 꽃을 피워
자연 속의 한 감각으로 스며들어,

식물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각으로
나의 하루를 위로해준다.

‘흙날리다’

흙에서 자란 민들레씨가 봄바람을 타고 흙날리다
새로운 자리를 잡아
그 위에서 땅의 감각을 피워낸듯,

흙의 부드럽고 따뜻한 감각으로
나의 지친 일상을 감싸준다.



sense of ground



‘쉬어가다’

바람을 타고 심 없이 날아온 꽃잎들이
잠시 안식처에 머물러 휴식을 취해
활기를 되찾으며,

상쾌하고 맑은 공기의 감각으로
바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많은 업무에 지치진 않으셨나요?
끝없는 과제에 좌절하진 않으셨나요?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시다면,
이제는 먼 곳이 아닌,
책상위에서 위로받으세요.

·
·
·

‘가든이란 바라보는 것’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가든을 재해석 하고싶었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에 직접 사용하는 가든을 접목하였다.



SENSE OF SERIES

by jinju & youjin

Landscape

조경디자인



GREEN AGIT

이성주 최상아



조경디자인

GREEN AGIT

정원이란 모든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원은 과거에서 부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은 정원에서 ‘소외계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정원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보았다.



이성주



최상아

CONCEPT

Real Play

진정한 놀이는 아이들에게서 나온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놀이**를 컨셉으로 공간을 구성해 보았다.



출처=<https://fr.pinterest.com/search/ideas/?q=real%20play&sort=type&from=playground%7C%20ped>

CONCEPT

MOTIVE



MOTIVE

Central park

도심속에 있는 공원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정원을 즐긴다.

센트럴 파크를 모티브로 삼아 정원으로 부터 소외된 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정원을 만들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1 양재근린공원
부지면적: 30M*40M



어린이 공원



대상지



학교



잔디 운동장

SITE

ANALYSIS



대상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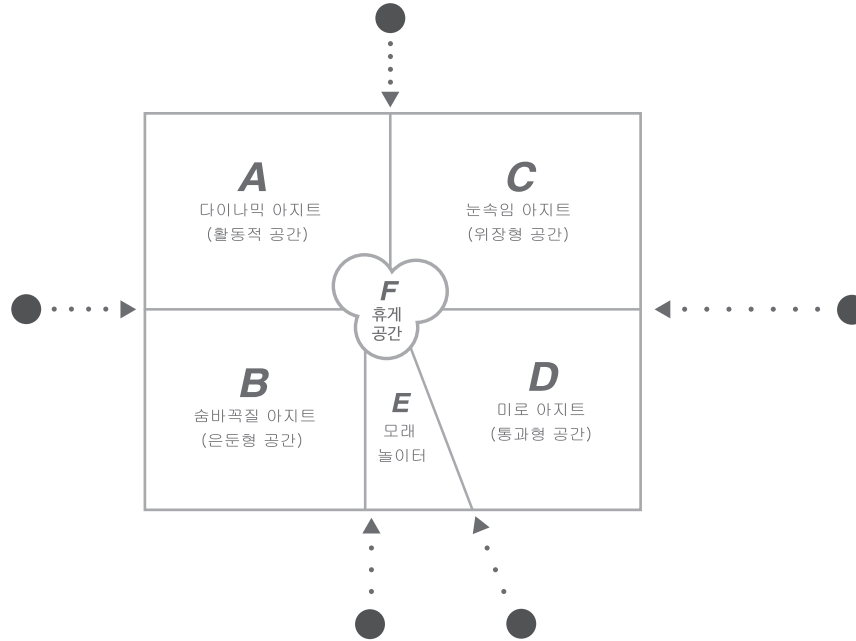
대상지 주변에
5개의 어린이 공원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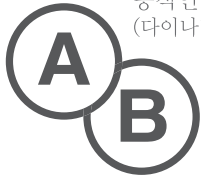
대상지 주변에
축구장과 농구장, 문화체육센터가 위치.

ZONING PLAN

대상지의 중심과 주변 다섯 개의 공원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선으로 구간을 나누었다.
 대상지가 주변 공원들의 중점에 위치해있고, 아이들이 모이는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을 고려해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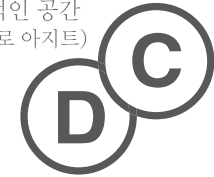


동적인 공간
 (다이내믹 아지트, 숨바꼭질 아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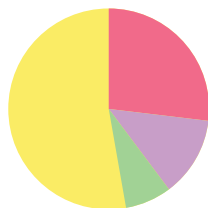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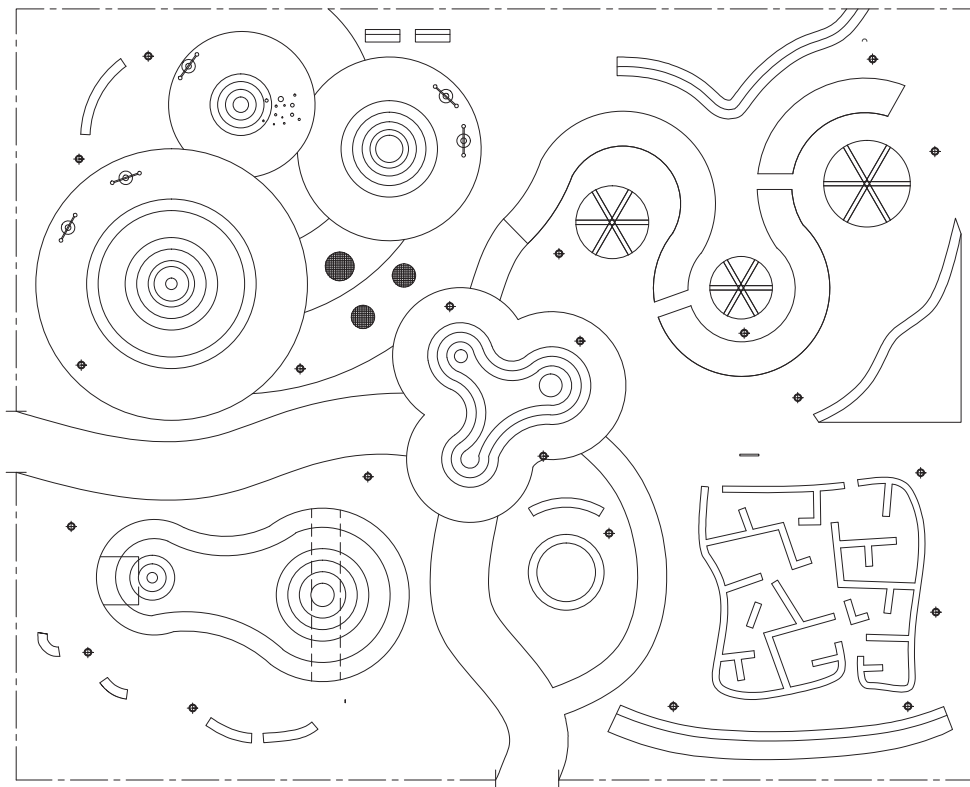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가
 부지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적인 공간으로 조성.

정적인 공간
 (눈속임 아지트, 미로 아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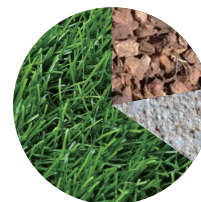
부지의 오른쪽은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적인 공간으로 조성.

GROUND PLAN



COLOR DESIGN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활동적인 색,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들을 이용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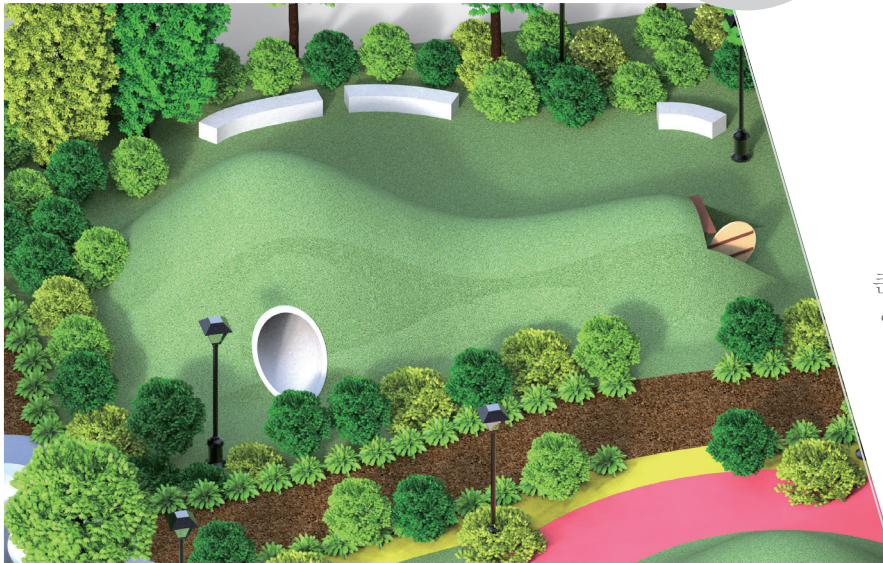
A

다이나믹 아지트

다양한 크기의 언덕과 자연적인 소재로 만든 놀이기구,
트램플린 등을 설치하여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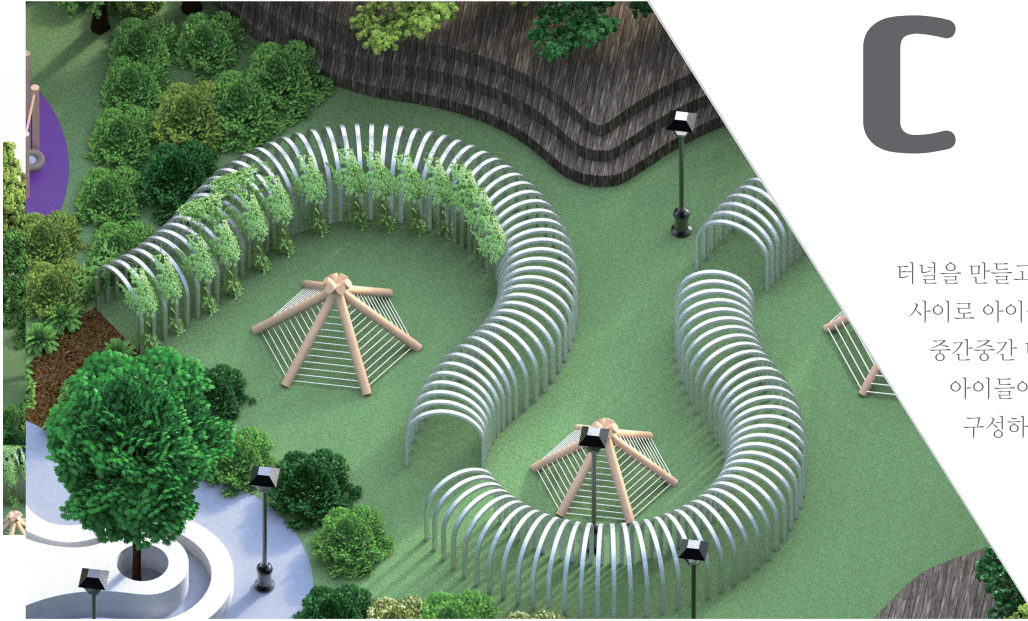
SELECTION
DETAILS



B

숨바꼭질 아지트

큰 언덕 두 개를 연결해 위로 아이들이 지나다니거나
언덕 안의 구멍을 통해 숨을 수 있으며
작은 언덕 쪽의 공간을 활용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은둔형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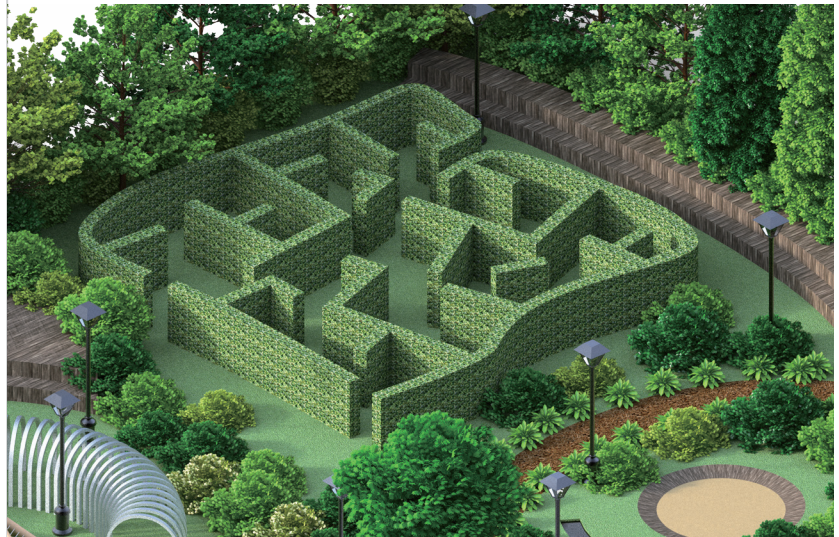
눈속임 아지트

터널을 만들고 주변에 넝쿨식물로 가림막을 만들어 사이로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중간중간 나무로 만든 움집 모양의 공간이 있어 아이들이 서로 숨거나 찾을 수도 있는 위장형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D

미로 아지트

관목으로 미로 형태를 만들어 아이들이 길을 찾아 빠져나갈 수 있는 통과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미로 앞의 테크에서 아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 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E

모래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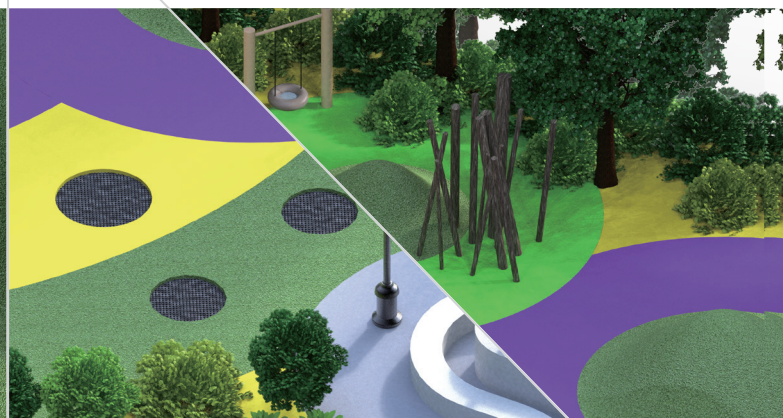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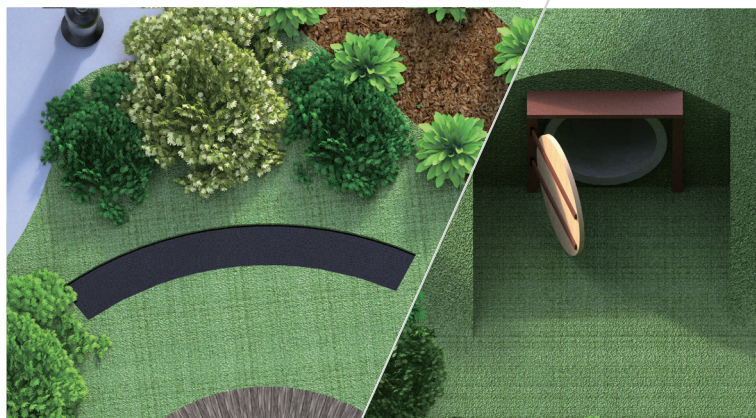
자연적 소재인 흙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구성한 모래놀이터이다.
주변보다 경사를 15도 낮게 설정하여
흙이 튕 가능성을 줄였고,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도
위치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

휴게공간

곡선을 이용한 벤치와 테이블이 있는 중앙 휴게공간을 구성하였다.
테이블의 가운데에 만들어진 구멍 사이로
수목이 우거져 자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늘을 만들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유도하였다.





Public

공공디자인



바람 한 점

고명지 김수진

어울림

강성훈 한유영

분(憤)을 참지 못하는 화분

박노상

GREEN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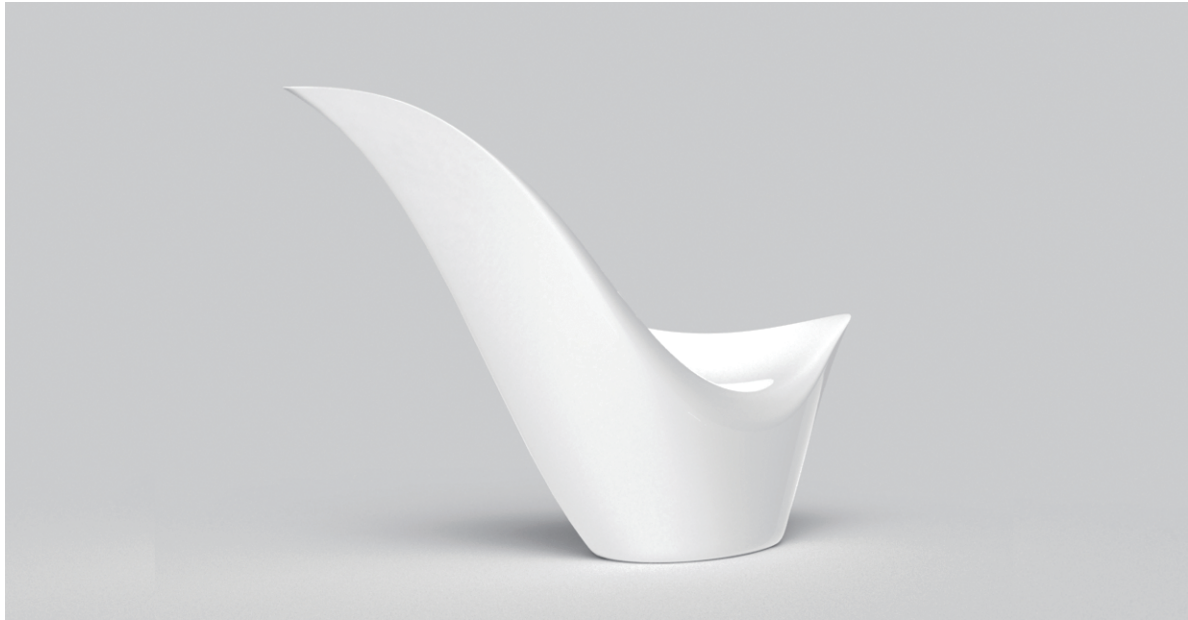
노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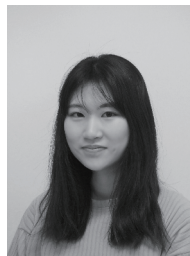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바람 한 점

여유가 없는 주위의 사람들의 바람 하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빠른 사회 속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단 하나의 의자. 휴양지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때, 자신의 코끝을 살랑이던 포근한 바람 한 점을 우리만의 감성을 담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시설물과는 다른 형태로 시각적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고명지



김수진

슬로 시티

아날로그적 삶을 추구하는 것
느림의 미학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빠요’ 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가든하다 “**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공간
빠른 사회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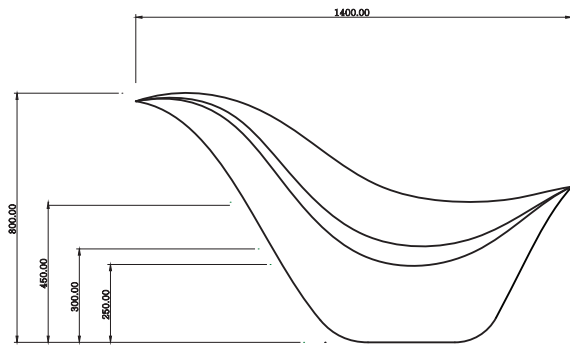
자연의 요소 '바람'의 이동을 표현, 마치 신비로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연출

즉, "바람이 머무는 공간" 바람의 '흐름'을 선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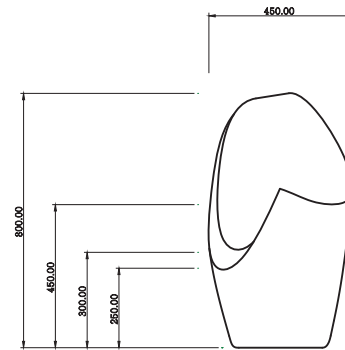


바람에 흩날리는 천의 모습을 단순화시킨 의자의 형태로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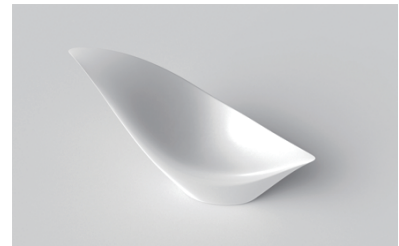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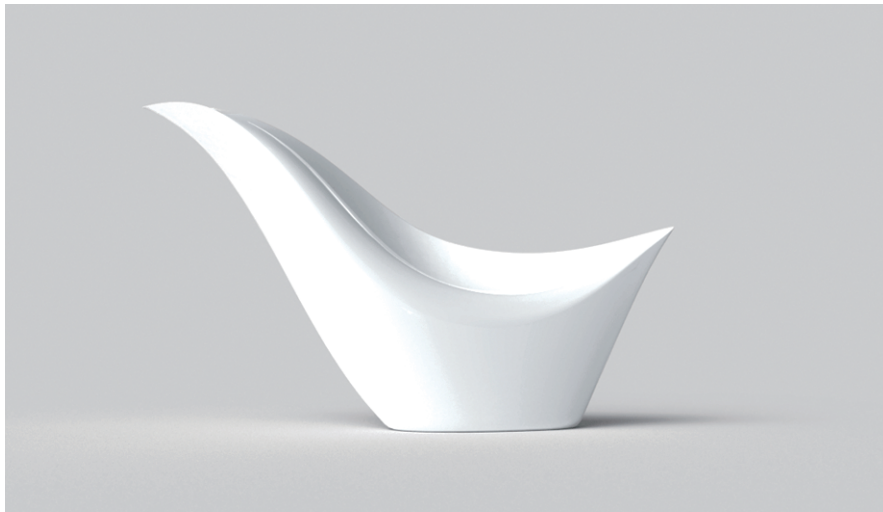
FRONT VIEW



SIDE VIEW



무한 경쟁 디지털 시대 사회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슬로시티의 느낌의 미학을 기반으로
‘빨리 그리고 많이’ 에서 벗어나고픈 ‘우리들의 바람’ 을 이야기하다



공공디자인 어울림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그러나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연에서, 자연과 하나된 휴식을 원한다.
또한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유대관계를 원한다. 현대인들이 주말농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는 자연과의 어울림, 가족과 이웃과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으로서 현대인들에 휴식의 질을 높이려 한다.



강성훈



한유영



프롤로그 Prologue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찾은 주말농장. 하지만 금세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사방에 방치되고 휴식공간의 부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휴식을 취한다. 먼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자연에서의 휴식, 아이들의 놀이공간, 이웃과의 유대관계’ 이 세가지 목적으로 주말농장이라는 공간을 찾게 된다. 우리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어른들에게는 휴식을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주려한다.

컨셉 Concept

〈하모니〉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이용하며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려는 의미와 도시에서는 퇴비를 농촌으로, 농촌에서는 수확물을 도시로 제공하는 조화로운 의미 담겨있다.



디자인 프로세스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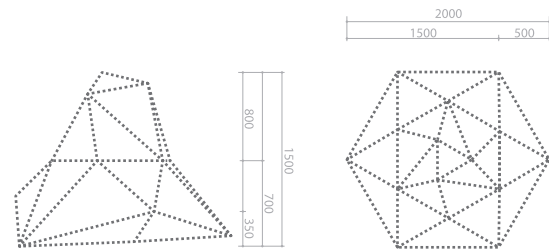
〈하모니〉의 키워드 ‘어울림, 소통, 화합’의 의미를 지닌 〈커뮤니티〉를 디자인 컨셉으로 사용하여 커뮤니티의 연결되는 선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기하학적 형태의 면까지 발전하였다.



사이즈 Size

Front View

Top View





NIGHT VIEW



제품디자인

분(憤)을 참지 못하는 화분

(憤: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다)

꽃에 꽃을 더하다.



박노상

에필로그

인공적인 꽃과 자연물이 합하여,
직접 꽃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아름다움 (三材美)





꽃은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꽃은 아름다움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분에 넘쳐 그만 타들어 갔다.



Ne quid nimis.



공공디자인
GREEN WAVE

GREEN[자연] + WAVE[움직임] : 자연으로 돌아가는 물결
외부의 정원을 집 안으로 들여와 삶의 여유를 찾으며 산다.
식물의 줄기, 잎맥, 나무뿌리 등의 자연곡선을 아름답게 변형시켜 정원의 생동감을 떠올릴 수 있는 실내식터.



노희나

PROLOGUE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갖고 싶을때 자연을 찾는다. 자연과의 공생을 원하지만 도시생활에서 정원을 조성 할 토지가 부족하다. 실외 정원을 실내로 들여와 거주자 누구나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는 미니정원을 만들었다. 초록으로 덮여진 벽을 보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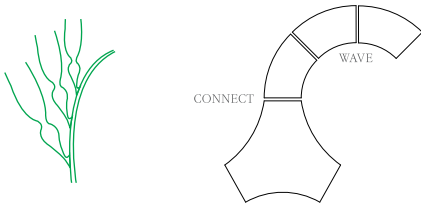
CONCEPT

‘나만의 초록쉼터 꾸미기’

RELAXED + SELF GARD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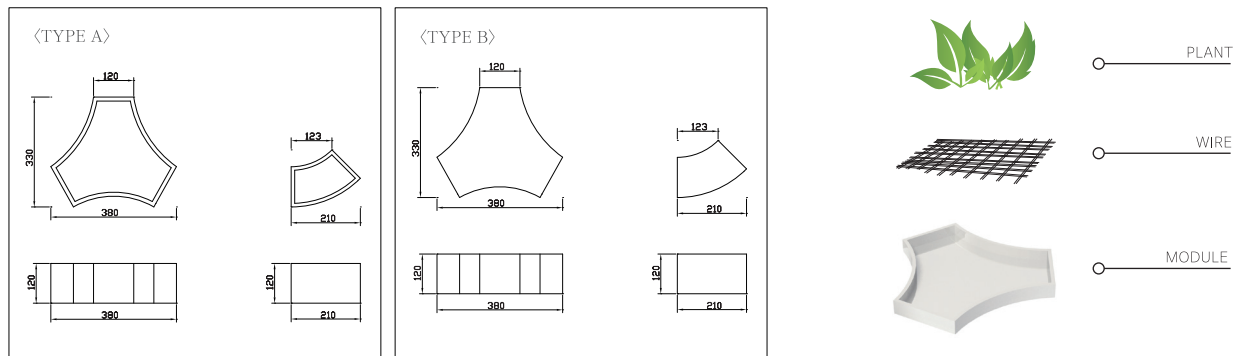
휴식과 안정을 주는 작은 공간에 이용자 스스로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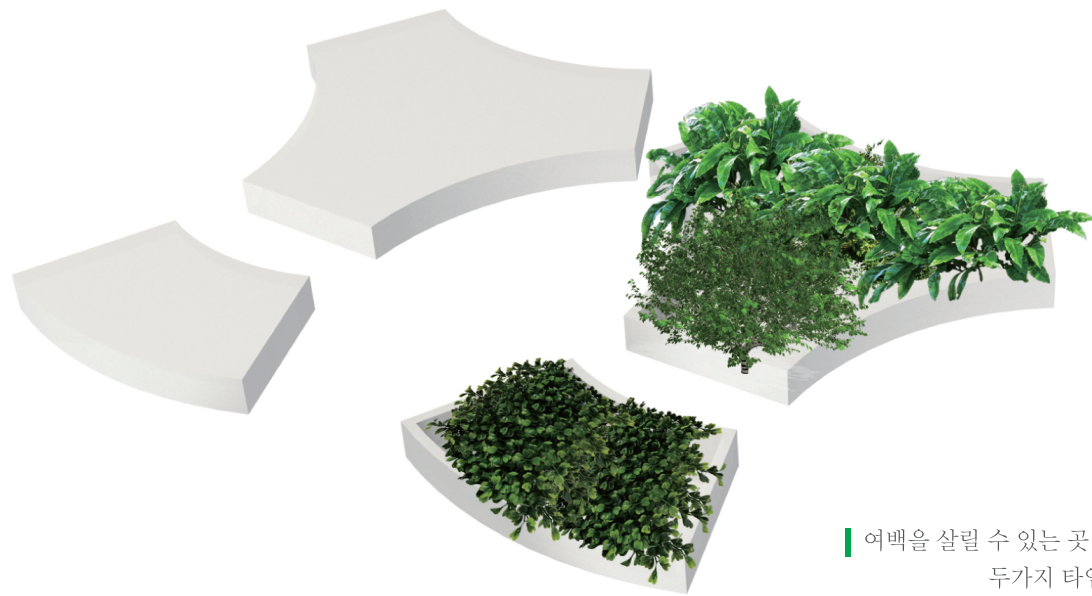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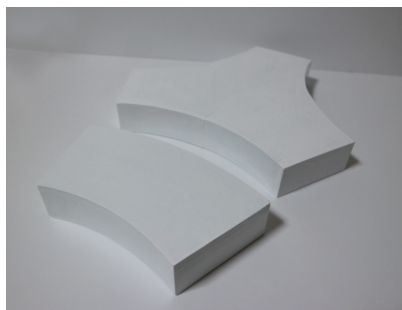
줄기와 잎 사이의 ‘연결성’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했다.

DRAWING





여백을 살릴 수 있는 곳 / 식물을 식재하는 곳
두가지 타입의 모듈





campaign

캠페인디자인



무채화

이은호

더미:[THE ME]

김유정 노승연



캠페인

우리의 정원에
색색의 꽃이 피길,

무채화
무채화



이은호

저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지금쯤 사는 우리에게 알맞은 정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졌습니다.

땅을 잃고 정원을 잃은 나에게
즐길 수 있는 정원은 무엇일까요

도시, 그 자체가 정원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온 도시가
나에게 꽃이 되어 다가오는 상상.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단어에 가로막혀
피지 못한 꽃들이 있습니다.


공공성, 사회 구성원이 두루 속한다는 말로
내가 규정되고 구속되고 인간이란
복잡한 유기체를 단순하게 만드는 위험한 단어입니다.

모두를 위한 색으로 결정된 회색,
무쇠의 질감, 효율성을 보여주는 색.

나를 감싸주는 도시라면
그에 대한 답으로 회색이 될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원에 색색의 꽃이 피길.



색의 따스한 분위기와
쇠라는 물체의 이미지 충돌에 의한
생경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익숙한 사물에 전혀 다른 피리감을 주었을 때
경험하는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마주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어난 나의 정원의 꽃, 무채화입니다.